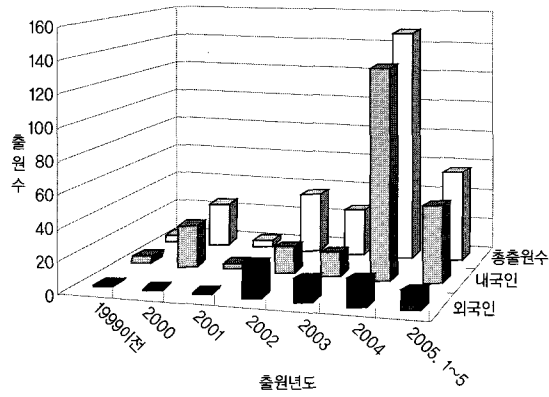


#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활발

근래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의 배출은 국지적 환경문제를 넘어 범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올 등 연료와 산화제인 산소의 화학반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켜 직류 전류를 생산하는 발전(發電)형 전지로서, 소형 연료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이다.

소형 연료전지는 특히,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재충전 없이 휴대폰을 1개월 이상 사용한다든지 노트북 컴퓨터를 간단한 연료카드리지 교환만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무선호출기, 디지털 캠코더, 카메라, 보청기, 전자식 도어록, 휴대용 전원장치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소형 연료전지 특허출원에 대한 연도별 외국인과 내국인의 출원건수.

있다. 소형 연료전지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2000 ~ 2004년) 연평균 52.1%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384%나 급증하였다. 지난 10년간 총 3백20건 중 내국인 출원이 2백52건(78.8%)으로 삼성 SDI(1백55건), LG전자(10건) 등의 순이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출원은 68건(21.2%)으로 마쯔시다 전기(31건), 산요전기(5건) 등의 순으로,

국내업체들의 소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소형연료전지는 친환경적이고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기술로서 정부 주도하에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선진 외국에 근접해 있으므로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중매기술, 중매쟁이 대체한다

'중매쟁이'가 줄어들고 결혼정보회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매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던 시기인 지난 2000년과 2002년 사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결혼 관련 특허가 무려 1백2건이 출원됐다고 한다. 이 분야 특허는 '99년까지 고작 5건에 불과했고, 2003년 이후에

는 18건이 출원되었다. 이처럼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은 이 시기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일반인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됐고 결혼정보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관련 아이디어 출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특히 결혼정보회사들이 맞선에서 만족도와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매칭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칭찬장, 앨범, 결혼식 물품 등 전통적인 결혼 관련 특허는 큰 변화가 없지만 컴퓨터 관련 특허는 크게 늘었다'면서 '하지만 발명의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출원된 특허는 거의 거절됐다'고 밝혔다.

# GS그룹과 삼이실업, 상표권 분쟁 커져

GS그룹이 새로운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LG그룹에서 분가한 GS그룹은 미국 랜도사에 의뢰해 기업 이미지인 CI를 새롭게 구축,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가구 수출업체인 삼이실업이 GS그룹 로고가 자사 것과 유사하다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삼이실업은 지난 2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특허청은 GS그룹 지주회사인 GS홀딩스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냈다. 특허청이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GS그룹의 도형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삼이실업의 심볼마크와 유사해 상품 출처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것. 둘째는 GS그룹에서 이 로고를 사용할 경우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GS그룹에게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차례 의견 제출을 할 기회가 있다. 합당하고 근거있는 반론으로 여겨져 특허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GS그룹의 상표등록 출원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GS그룹은 새로운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이후 삼이실업과 같은 유사 상표가 등록되면 아예 로고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GS그룹이 CI 작업을 하면서 지출한 광고나 간판교체 등의 비용은 1천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경우 다시금 전면적인 CI 작업을 해야 하는 까닭에 GS그룹에서는 상표등록 출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 분쟁의 한 축인 삼이실업 쪽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여서 GS그룹이 '상표권 사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한국 OLED 특허출원 급증

한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출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7일 OLED 시장 조사기관인 OLEDNET(대표 이충훈)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의 OLED 관련 공개된 등록 특허를 분석해 내놓은 '2005년 상반기 OLED 특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한국 출원인의 해외 공개 등록 출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한국이 출원 건수와 출원인 비율에서 증가율을 보여 OLED 연구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OLEDNET은 분석했다.

한국은 올 상반기 전체 공개 특허에서 5백67건, 등록에서 2백15건을 기록해 2004년 하반기 4백35건, 9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미국 공개 등록 특허에서 각각 1백70건, 83건을 출원해 지난해 하반기의 72건, 39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작가 유현종씨 '들불' 상표등록 신청



'들불'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작가 유현종씨.

중진 작가 유현종씨는 최근 대표 소설인 '들불'을 행림출판사에서 세 번째 펴내면서 '들불'이란 단어를 고유 상표로 인정해 달라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들불'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에 없었다. 내가 '72년 현대문학에 연재하면서 쓴 말이다'라고 말했다. '들'에 번지는 불길'이라는 뜻의 '들불'은 그 뒤 오랫동안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

가 워낙 널리 쓰이자 몇 년 전야 등재됐다. 유씨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황토현의 들불'이라는 소설이 나와 크게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들불'이란 말은 내가 만들어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뜻을 그쪽에 전달했다. 하지만 알아보니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제목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었다. 출판계 친구들과 상의하니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들불'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게 되면 연극,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문예물에서는 유씨가 독점 사용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카페나 서점, 단체 이름 등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유씨는 '내가 자란 전북 김제 만경평야에는 늦겨울 풀이 마르면 자연히 불이 나서 훨훨 옮겨 다니곤 했다.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이 소설을 구상하면서 그 불이 몇 달 동안 눈앞으로 지나다녔다. 연재를 시작하려니 자연히 들불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들불'은 '76년과 '81년에 책으로 발간됐다. 이번 세 번째 '들불'에는 문학평론가 김병익(문예진흥위원장)씨와 북한의 중진 평론가 정형준씨의 평론이 함께 실렸다. 정씨는 '들불은 북한 작가 홍석중의 늑새바람 등 북반부의 뛰어난 역사소설과 함께 통일 후 우리 민족문학의 화원에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 있을 것'이라고 썼다.

## 지 / 면 / 안 / 내

- 3 '2005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 및 아시아 여성발명품 전시회'
- 4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유사 발명 막아
- 5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6 최고 인기상품 선정된 '미니홈피' 누구니 쓸 수 있다
- 9 인물 FOCUS. ㈜루덴비아이에프 이희자 대표이사
- 12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 13 중국 휴대전화 30%가 '짝퉁'
- 14 특허청, 에너지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